

영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

- 영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을 중심으로 -

엄 성 애*(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영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성, 연령, 기질로 나타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로 나타나는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인 지역에 위치한, 보육경험이 있는 19-36개월 영아의 어머니 182명이었다.

측정도구로는 영아의 기질인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거부, 통제, 반응성, 과보호, 탁아환경의 질인 '보육환경', '교육과정', '부모와 협력관계' 및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이 사용되었다. 그밖에 탁아 시작시기, 현재 주당 탁아이용 시간, 보육시설 변경 횟수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에는 SPSS 1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공격성은 대체로 연령과, 활동성 기질 및 거부적, 통제적, 반응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만이, 여아의 경우는 연령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은 공격성과 상관성이 없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기질과 양육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중 거부와 반응성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반응성은 남아의 활동성과 상호작용하여 활동성이 높은 남아에게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을 때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남아와 달리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과 거부와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서, 활동성이 높거나 사회성이 높은 여아에게 어머니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활동성이 높은 여아에게는 반응성이 높은 경우, 사회성이 높은 여아에게는 반응성이 낮은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공격성은 영아 자신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조합을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을 보였다. 특히 여아의 경우는 사회성이 높은 것이 공격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성과의 상호작용도 남아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미 생의 초기에 남·여아의 공격성 발달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아기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는 보육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영아기 발달에 기질이나 양육의 요인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